

12~17세 화이자 접종...고령층 '부스터샷'

소아청소년·임신부까지 예방접종 확대 화이자·모더나 접종간격 4~5주로 단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접종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

료해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명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을 거쳐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접종을 진행한다. 12~15세(2006~2009년

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약한 뒤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는다. 예약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 예약할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접종한다.

임신부도 4분기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접종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약 13만6,000명이다. 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인 임신 초기 여성은 진찰을 받고 접종해야 한다.

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되며 임신 여부와 출산 예정일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여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 임신 관련 정보를 알려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추가가 접종도 나간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중 접종완료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된다.

급성 백혈병,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저하자들은 기본 접종을 완료 후 2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다. 예약은 10월 18일부터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을 토대로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약 6만명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약 50만명)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약 34만명)는 각각 11월 10일, 15일부터 접종한다. 부스터샷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되며, 12월까지 약 369만명이 접종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단축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음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된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9~27	순천	20~28	광양	20~26
나주	19~27	목포	20~27	여수	21~25

일출 06:25 일몰 18:21
월출 22:44 월몰 13:00

장성	19~27	흑산도	21~26
담양	19~28	구례	19~27
화순	19~27	곡성	18~27
영광	19~27	완도	20~26
함평	19~27	강진	19~28
무안	19~27	장흥	19~26
영암	19~28	해남	19~27
진도	20~26	고흥	19~26
신안	19~27	보성	18~26

목포	만조 05:56 18:51	여수	만조 00:00 13:09
	간조 11:07 23:52		간조 06:18 19:0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 5·18 조종사들 '헬기 사격' 전면 부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 전두환씨(90)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2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육군 506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조종사 4명 중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한 명을 제외한 3명이 출석했다.

5·18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3시 사이 광주 불로교 상공 등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 시내에서 헬기가 총을 쏘면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정신 있는 사람이면 못 쏜다"고 거듭 부인했다.

최씨는 이어 "500MD 헬기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은 1분에 2,000발, 4,000발이 100m 양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국민에게 쏜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광주에서는 5월 21일뿐 아니라 다른 날도 총을 쏘지 않았고 위협 사격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중 31사단장이 해남대대로 출동하면서 폭도들을 막아달라고 하길래 위협해서 헬기가 사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다리만 쓸 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총이 아니라고 했고 사단장이 체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남으로 출동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리라 생각하고 해남평야 논바닥에 총을 쏘는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찍부터 광주에 가 있었다는 최씨는 어떤 지휘관으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사격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공동 무전, 다른 부대 조종사 사이에서도 그러한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500MD가 공격형 헬기지만 지휘관 수송 등 행정 업무에 활용했다며 UH1H 헬기가 광주 도심에서 한 차례 피격당한 뒤로는 보급품 이송 등을 할 때도 군인들이 자주 헬기를 이용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1H(수송용)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으며 전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최환준 기자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농성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공사를 요구하며 서구청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화정·농성동 상습침수 대책 세워야' 주민대책위, 오체투지 비상행동 결의대회

집중호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광주 서구 화정·농성동의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서구화정·농성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상습 침수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거

대한 하수관로로 20년 넘게 오·폐수가 넘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지대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됐던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이 지역은 고의로 누락됐다"며 "침수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구청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해결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심지어 서구청은 서면으로 약속한 것마저 말 바꾸기를 하며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침수 지역부터 서구청까지 약 1.5km를 행진했다. 서구 관계자는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선우 기자

광산구 외국인 자율접종 '성과'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자율접종이 한달여만에 5,55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1개국 외국인주민 3,544명(30세 이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이 안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2,805명의 126.3%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난 23~24일에는 30세 미만 외국인주민 1,81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 역시 계획한 1,500여 명보다 많은 숫자다. 같은 기간 광산구보건소에선 199명의 외국인주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접종에 참여한 광산구 외국인주민은 5,55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종 기회를 보강한 광산구의 적극행정이 그동안 숨어있던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백신을 맞으려는 외국인주민이 몰리면서 광산구는 광주시로부터 400명분 안센 백신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주민의 백신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15일까지 18세 이상 미접종자(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접종 불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외국인 근무 기업체, 사업장, 외국인 유학생 등에 안내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가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라이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라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블랙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척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척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복빌딩